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7주일

제34권 45호(가해) 2014년 10월5일

[묵상]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주어버렸다.
소작인들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할 수가 있는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어리석은 주인입에 틀림없다.
그렇게 우매한 주인이므로 종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비유다.

주인이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까닭은
주인은 눈이 멀었고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주인은 믿음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눈이 뒤집혀져 있었다.

그랬기에,
소작인들이 자신의 모든 종들을 죽여 없애도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큼,
주인은 그들을 믿고 사랑했던 것이다.
주인의 지극한 믿음과 사랑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민찬기 요한
특전미사	(생)정엘리스 클라라 & 정린다 켈마, 김준호 프란치스코 & 김씨니 클라라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철우 야고보, 오장규, 정학순 발바라 & 김야고보, 이종갑 부르노, 반치우 안셀도, 이상일 요셉 (생)김부권 요한, 김영철 베드로 & 김영길 안드레아, 김선이 아네스 & 김명 베드로, 토린스 동1반가정, 이명탈 라파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주용자 베로니카, 이윤희 바오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5,1-7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하느님의 아들을 영접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는 복 되시-도-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올리브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6-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33-43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4	187	187
봉헌	256	255	269
성체	382	309	284
파견	186	321	321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2장 성령 이해의 역사

1. 성령에 관한 교부들의 증언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성인(†155)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의 일치 안에 계시면서도 구분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한다.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101)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선택된 자들의 믿음과 희망” 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는 예언적 영감의 원천이시요, 성화의 원리이시며 사도적 열성의 원천이시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코린토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자는 다른 이가 받은 은사를 존중하라고 권고한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200)은 성령과 교회와의 일치를 강조한다. “과연 하느님의 선물은 교회에 맡겨졌다. ……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신이요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다. ……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 주교직을 계승한 원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이레네오 성인보다 앞선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107)은 성령의 활동을 주교직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이해한다. 그는 교회가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강조한다. “성령께서 소리 높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교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여겨 보호하십시오.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분열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닮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로마의 히폴리토 성인(†236)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써 거룩한 전통의 보존을 보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교를 축성하시며 그에게 목자와 대사제의 권한을 주신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교부들의 성령 이해는 신약 성경의 성령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한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모든 구원 역사가 성부에게서 유래하고, 성자를 통하여 실현되며, 성령 안에서 충만히 성취된다고 이해하면서, 성자와 성령은 ‘하느님의 두 손’ 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 그리고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이단적 경향도 생겨나면서 성령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다. <◆계속>

복도 지지리도 없는 성모님? 복된 여인 성모님!

성모님과 관련된 성월은 한 해 중 가장 좋은 계절에 맞이하게 됩니다. 5월에는 성모성월, 10월에는 묵주기도 성월, 성모님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 받으신 분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대체 복된 여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간음에 해당하는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남편 될 사람은 날 어떻게 볼지,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볼지, 과연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어 줄지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안배로 남편 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혼인을 하게 되지만, 출산의 기쁨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보냅니다. 목동과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때는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에 기쁨도 잠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질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년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사흘 만에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았는데, 성모님은 소년 예수님에게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줄을 모르셨습니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혹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니 이런 4가지 없는 녀석을 보았나!"하며 맘매를 드셨겠죠?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성모님은 마음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갈 구실을 찾고만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몰리고, 조롱받고, 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봐도 성모님이 무슨 하느님의 복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복도 지지리도 없이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흔히 바라고, 원하는 복을 성모님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신분인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느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묵주기도 성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인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지형 신부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기회를 주십시오

착한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욕하면서도 닮는다는데

흉내내다보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척 하는 동안은 나쁜 짓을 못할 테고,

그러다보면 어느 날 얼마쯤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가증 편다, 위선이다 마시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기다려주십시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 서로 인사 합시다.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태훈 아우스딩	박혜경 레나타	정영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수민 히메리오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2차헌금이 있습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0월27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 회비 : \$20(1인), \$3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310)781-0021

◆요셉회 가을 야유회

- 일시 : 10월18일(토요일), 12:00~5:00pm
- 장소 : 토런스 팍 (세펠베다 + 알링턴)
- 요셉 회원 및 부부, 가족모두 환영합니다.
(푸짐한 음식및 기념품 있습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자마이카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음식판매 : 오늘주일

이유진 신부님과 각 성당 학생 12명이 함께 자마이카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지에 전해줄 후원금 모금을 위해 맛있는 캘리포니아 물을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후원해주세요.

- 소공동체 : 캘리포니아 물(\$5), 주일학교교사 : 냉커피(\$1)

◆사회복지분과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정부복지혜택, 영어서류해석, 서류신청방법, 도움이 필요한분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 & 둘째주 7:30 미사후 : 강당 11:00 미사후 친교장
- 전화상담 :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오바마 건강보험 / 국민 건강보험 / 저소득 건강보험 세미나

- 내용 : 신청방법, 혜택요약, 사용방법등
예) 무료독감주사및 피검사받는 법
- 일시 : 오늘주일(5일) 미사후 12:30 교실
- 강사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2015 메디케어/ 메디칼 통합건강보험과 메디칼 플랜변경내용

- 일시 : 10월 12일 11시미사후 12:30
- 장소 : 교실 또는 성전
- 주최 : 안나회
- 강사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안나회장 한춘선 루시아 ☎(310)738-4387

◆ 2015년 계사년(다해) 새해달력 광고후원 주문 받습니다.

- 신청마감 10월 12일(주일)까지 사무실
- 새해달력은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있습니다.
- 내용 : 순교의땅, 신앙의 숨결(편화)

◆멕시코 선교용 학용품 수집...사무실내 지정공간: 10월 말까지.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5일(주일) * 소공동체 : 캘리포니아 물(\$5)
주일학교교사: 냉커피(\$1)
*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8학년)
- 10월12일(주일) * 토런스 남1,2 : 소고기국밥(\$3)
* 주일학교 : 콜럼버스데이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 옥 박선희 오세원 이상곤 임 순 강인모 김원모 박완철 우희균 이영희 장영진 구자운 김원호 박종열 유선식 이원형 정혜영 국세찬 김일선 배태임 윤화경 이윤무 최기호 금영도 김재희 성미선 이경태 이인석 한장환 김교복 김주량 송영미 이병우 이현주 황지영
합계 : 4,350 (익명 \$150포함)	
주일미사 헌금 : \$2,579	

성전헌금	강숙경 김 옥 박완철 이상곤 정혜영 송마이클 강인모 김원모 오세원 이영희 최기호 구자운 김원호 유선식 이윤무 한장환 국세찬 김재희 윤화경 이인석 황지영 금영도 김주량 이경태 이현주 이크리스 김교복 박선희 이병우 임 순
합계 : \$2,780(익명 \$150포함)	
감사헌금 : \$50(정미영)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 하느님의 자녀보호(Protecting God's Children for Adults) 교육

- 영어 Virtus Training : 10월11일(토)오전9시~12시
- 한국어 Virtus Training : 10월12일(주일)오후1시~4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주일학교 교장 김나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 오늘주일(5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일학교 F.I.G.S.Jr. & F.I.G.S. Lock-in

- 중등부 : 10월10일(금) 오후 6시 30분 ~11일(토) 오전 10시
- 고등부 : 10월17일(금) 오후 7시 ~18일(토) 오전 10시
- 기본준비물 : 세면도구, 침낭, 여벌옷, 재킷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어 청년 피정 2014 Fortes in Fide Young Adult Retreat "Sacred Silence"

- Date : Oct. 17(Fri)~19(Sun), \$100
- Ages : Single Young Adults -21 years old and up
- Location : Kamp Kuper, Escondido, CA
- Registration Deadline : Oct. 5th (Sun)
- More INFO : Helen Wie (helenwie7@gmail.com)

◆ 파티마의 성모님발현 97주년 기념행사

- 일시 : 10월 13일(월요일) 저녁 7시
- 장소 : 성 바실한인천주교회 본당
- 준비물 : 묵주, 성가책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념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티켓은 본당사무실에 위탁판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10/18(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0/1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0(금) 오후 7:30 성당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0/18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0/11(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0/10(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0/19(일) 12시30분 풍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데레사 634-6923 10/17(금) 오전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10/11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404-1607 10/20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0/11(토) 오후 7시 합기도장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213-700-6983 10/10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0/10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0/12(일) 오후4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617-3568 10/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5 > 인연민 마르티노(1737~1800)? 심아기 바르바라 (1783~1801)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

충청도 덕산 주래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인연민 마르티노는 황사영 알렉시오를 만나 천주교 신앙을 접한 뒤 한양으로 올라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연민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하였습니다. 1797년 정사박해 때 체포된 인연민은 돌에 맞아 턱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뼈가 부서지는 형벌 속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때가 1800년 1월 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질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

경기도 광주 태생인 심아기 바르바라는 오빠 심낙훈에게서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한 뒤,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해 결혼을 단념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동정(童貞)을 바치기로 결심한 후, 심아기는 조용히 집 안에서만 지내면서 모범적으로 교회의 법규를 지켜 나갔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오빠 심낙훈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아기는 머지않아 포졸들이 자신에게도 찾아올 거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순교하자고 오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있는 젊은 천주교인 여자를 잡으러 왔다.”며 위협하자, 심아기는 어머니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천주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도록 놓아두십시오.”라고 말한 뒤,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한양으로 끌려간 심아기는 배교를 강요당하며 20일 동안 모진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계속되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1801년 4월 초 열여덟 살의 어린 나이로 포도청에서 매를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녀에 앞서 체포된 오빠 심낙훈은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여 무안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심아기가 순교한 뒤 심낙훈이 박해자들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 누이 바르바라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쳐 포도청에서 매를 맞아 죽게 하였는데, 누이는 끝까지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아홉을 가진 사람

무대 위에서 공연을 마치고 퇴장을 하던 다섯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이크 스탠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끝까지 몸 개그로 웃기려 한다고 즐거워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의 집중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냐? 혼자만 그렇게 튀고 싶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조명이 꺼지니까 앞이

안 보여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단순히 안경 도수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거나 걷는 게 힘들어 졌을 때도 그저 ‘야맹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마친 후 늘 넘어지지만 하던 그가 중대 발표가 있다며 대기실에서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 사실 나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홍록기, 김경식, 이웅호, 표인봉과 더불어 틴틴파이브의 멤버로 활약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은 시세포가 점점 퇴화하는 희귀병으로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멤버들은 그동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과 불치병에 걸린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방송 진행자로도 우리들에게 친숙한 그는 5% 남짓 남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기적과 같은 삶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 이 눈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희망에 기뻐하며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기증자를 만난 그는 돌연 눈을 기증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기증받기를 거부하신 거죠?”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움직이는 그는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며 오직 성한 곳 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우 씨는 안구를 기증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 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생각하기에 따라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더 감사하며 산다면 어느새 행복은 우리 마음에만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도조 賭組 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곧 건강, 시간, 재능까지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자신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신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포도원을 우리 차지로 주신 사랑, 곧 성체성사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몸이고 피입니다. 미사는 이 큰 사랑의 축제입니다.

◆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